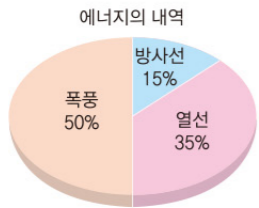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대하여●

원자폭탄은 핵분열성 물질(플루토늄 등)이 핵분열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무기로 이용한 것으로, 통상적인 폭탄에 비해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분열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감마선이나 중성자선과 같은 방사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은 길이 3.25미터, 직경 1.52미터, 무게 4.5톤의 원자폭탄으로, 그 생긴 모양 때문에 패트맨이라고 불렸습니다. 폭발했을 당시 고성능 폭약 21킬로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내역은 폭풍이 약 50%, 열선이 약35%, 방사선이 약 15%로,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가사키 거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군기에서 촬영한 버섯구름(미군 촬영)



원폭 탑재기 보크스카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상황●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시 인구 약 240,000명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자 수 (1945년 12월 말까지의 추정)	사망 73,884명 부상자 74,909명

(1950년/나가사키시 원폭자료보존위원회 조사)



다음날의 폭발 중심지 부근(야마타다 요스케 씨 촬영)
이 부근의 건물들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로드롤러에 깔려 부서진 듯한 건물 잔해 속에 검게 탄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용 안내●

구분	개인	단체 (15명 이상)
일반	200엔	160엔
초·중·고생	100엔	80엔

※초등학생 미만은 무료입니다.

- 개관시간** ●8시 30분~17시 30분 (입장은 17시까지)
5~8월은 18시 30분까지 (입장은 18시까지)
- 휴관일** ●12월 29일~31일
- 주차장** ●유료(버스 12대, 일반차 71대)

교통 안내



- JR 나가사키역에서
 - 시내 전철...야가사코행을 타고 하마구치마치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
 - 버스...1, 2, 9번 나가사키버스를 타고 하마구치마치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
- 나가사키공항에서
 - 리무진 버스...우라카미경유 나가사키역앞행 버스를 타고 마쓰야마마치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약 5분
- JR우라카미역에서 도보 15분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NAGASAKI ATOMIC BOMB MUSEUM



(우)852-8117 나가사키시 히라노마치 7번 8호
TEL095-844-1231 FAX095-846-5170
E-mail genbaku@city.nagasaki.lg.jp



QR코드를 스캔하면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website

머리글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상공에서 한 발의 원자폭탄이 작렬했습니다. 나가사키 거리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 남은 사람들도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으며, 많은 피폭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나가사키시의 피폭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4월에, 그때까지 피폭 자료를 전시하던 나가사키 국제문화회관을 개축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이 자료관에서는 피폭 자료와 피폭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등의 전시를 비롯하여, 원폭이 투하되게 된 경위와 핵무기 개발의 역사, 평화 회구 등을 스토리성 있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설 안내

상설전시실(지하 2층)

상설전시실에서는 대형 피해자료의 전시와 피폭한 우라카미성당 측벽을 재현한 조형물 등을 통해 피폭 직후의 나가사키의 참상을 재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품과 피폭 자료, 피폭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지하 2층)

상설전시를 보완하여, 원폭과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년에 수 차례씩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이드 리시버 대여(지하 2층 관람권 매표소)

상설전시에 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음성 가이드를 대여해 드립니다(유료). 언어는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브라질어를 지원합니다. (1대 154엔)

서적 판매점(지하 1층)

원폭과 평화에 관한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폭자료관 홀(지하 1층)

평화학습, 강연회, 각종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서 유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평화학습실(지하 1층)

피폭자들이 피폭체험담을 들려주는 등 평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실(1층)

개관시간 ●9시~17시(월요일 휴무)

휴식광장(지하 1층)

내방객을 위한 휴식 장소입니다.

기타

찾집이 있습니다.



휴식광장

주변시설에 대한 안내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근처의 주변 시설로는 국립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 나가사키시 평화회관이 있습니다.

A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의 거리가 원폭으로 인해 순식간에 파괴된 11시02분을 가리키며 멈춘 시계를 비롯해 피폭 전의 나가사키와 시민들의 생활,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촬영한 버섯구름 영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1시 2분’
11시 2분을 가리키며 멈춘 벽시계

폭심지에서 약 800m 떨어진 산노(山王)신사 부근의 민가에 있던 것. 폭풍으로 인해 파손된 시계의 바늘이 폭발 시각이 11시 2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피폭 전의 나가사키’
아마자토마치 일대의 원경
(미 육군 병리학연구소 자료)

중앙에 보이는 건물은 피폭되기 전의 우라카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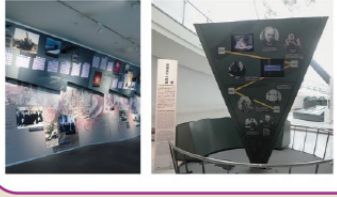
‘원폭 투하’
원폭이 작렬하는 순간과 원폭으로 인해 버섯구름이 형성되는 모습을 미군기에서 촬영한 영상.



C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핵무기의 시대’
핵무기 개발의 역사와 전후의 국제정세, 세계 반핵운동 등을 연대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현대의 핵무기’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명중 정확도는 크게 개량되었고, 핵탄두의 위력도 거대화되는 한편 실전에서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점점 소형화되었다. 이 코너에서는 핵실험 횟수를 전시하고 현대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영상자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D 비디오실 외

‘비디오실’
원폭 기록영화 상영

미국 전략폭격조사단이 촬영한 원폭 피해 기록을 편집한 영화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기록’과 젊은 세대에겐 피폭 체험을 계승해 주기 위해 피폭 35주년 사업으로 나가사키시와 나가사키현이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8월 9일의 나가사키’를 상영하고 있다.

‘Q&A 코너’
원폭 및 평화에 관한 Q&A

초급편과 상급편을 합하여 총 50개의 원폭 및 평화에 관한 퀴즈를 마련해 놓고 있다.



B 원폭에 의한 피해의 실상

원폭이 투하된 직후의 나가사키의 참상을 재현하여 원폭의 파괴력과 공포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원자폭탄의 폐허로 변한 나가사키 거리’
구제 케이호중학교의 급수탱크

다리가 휘어진 이 급수탱크는 폭심지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제 케이호중학교(현재 나가사키 니시고등학교인 곳)에 세워져 있던 것.

‘우라카미성당의 참상’
로스리오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우라카미성당의 예배당에서 고해를 위해 모여 있던 신부 2명과 신도 수십 명은 무너져 내린 건물터미에 깔려 전원 사망하였다. 후일,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로스리오 중 몇 점이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 고해(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를 사제를 통해 신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나가사키 원폭투하까지의 경과’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경과와 해설
이 코너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사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나가사키형 원폭 (파트 맨)
나가사키형 원폭의 실물 크기 모형. 나가사키형 원폭은 돌래의 회약으로 플루토늄을 안쪽으로 폭축시켜 핵분열을 일으킨다.

‘방사선에 의한 피해’
방사선에 의한 피해
추도평화기념관 입구
원폭 투하까지의 경과
우라카미성당의 참상
원자폭탄의 폐허로 변한 나가사키 거리
원폭 투하까지의 과정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나가이 다카시 박사
원폭 투하까지의 경과
원폭 투하
영원한 11시 2분
원폭 투하
피폭 전의 나가사키
핵무기의 시대
핵무기 개발·실험의 피해자들
나가사키에서 세계로
현대 핵무기
핵무기의 시대
핵무기 개발·실험의 피해자들
나가사키에서 세계로
현대 핵무기
핵무기의 시대
핵무기 개발·실험의 피해자들
나가사키에서 세계로
현대 핵무기



‘나가이 다카시 박사’
나가이 다카시 초상
나가이 다카시는 조교수로 근무하던 나가사키과대학 부속의원에서 피폭하였다.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부상 직후부터 부상자 구호와 원폭 장애에 대한 연구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구조·구호활동’
특설 구호병원이 된 신코젠 국민학교 (도미시게 야스오 씨 촬영)
시내에서 가장 큰 구조소로서 수많은 피폭 환자들이 수용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폭 특유의 증상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피폭자들의 절규’
피폭자 구조절대대(구니히토 씨 그림)
원폭 구조절차를 그린 그림. 당시 기관사였던 작자가 나가사키에 투하된 사실을 전해 듣고 구조절차를 운전하여 폭심지 부근의 건물터까지 진입했을 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작품.

‘방사선에 의한 피해’
현저하게 비대해진 비장
방사선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비대해진 비장. 오른쪽은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의 비장.

‘폭풍에 의한 피해’
시로아미 국민학교(미 육군 병리학연구소 자료)
폭심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인 교사는 피폭 직후 간신히 골격만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원폭 폭풍으로 이미 약해진 건물은 그 후의 비바람 등으로 인해 3층부터 붕괴되었다.



‘피폭한 나가사키 거리’
나가사키 지형 모형
천장 모니터에 의해 모형 위로 회구, 열선, 폭풍, 화재, 방사선이 평면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원자폭탄의 폐허로 변한 나가사키 거리’
구제 케이호중학교의 급수탱크



‘열선의 의한 피해’
여학생의 도시락
폭심지에서 약 700m 떨어진 이와와마치에서 피폭한 쓰쓰미 사토코 양(당시 14세)의 유품. 도시락 안의 밥은 그 후의 화재로 숯덩이처럼 변해 있다. 반찬통 뒷면에는 ‘2-3 쓰쓰미 사토코’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손뿔과 유리
폭심지 부근에서 발견된 것. 사람의 손뿔과 유리가 고열로 인해 녹아 엉겨 붙어 있다.

녹아버린 6개의 병
폭심지에서 약 400m 떨어진 상점 터에서 발견된 것. 고열로 인해 병의 윗부분이 녹아 엉겨 붙어 있다.

작업복과 전투모
폭심지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미쓰비시 나가사키제강소에서 피폭한 작업원의 작업복. 열선의 직접 조사를 받은 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다.

두개골이 붙어버린 철모
폭심지 부근에서 발견된 것. 내부에 피폭자의 두개골 일부가 붙어 있다.



한 쪽 기둥만 남은 산노신사의 도리이
(하야시 시게오 씨 촬영)

폭심지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 오른쪽 돌담 때문이었는지 폭심지 쪽의 기둥은 왼쪽으로 쓰러지고, 폭풍의 압력을 다소 피할 수 있었던 한 쪽만 남아 아직도 버티고 서 있다.

